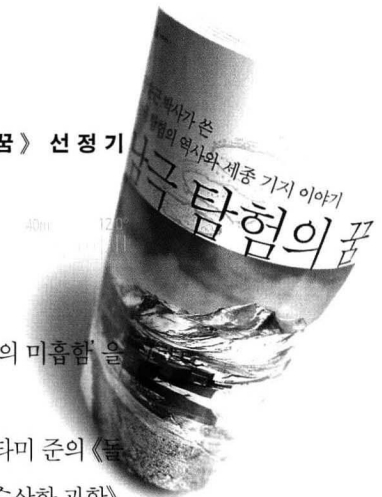


극지에서의 연구와 삶을 교양화하는 데 성공한 탐험가의 '힘'

장순근의 <남극 탐험의 꿈> 선정기



<출판저널> 3월호 '이달의 책, 이달의 저자' 선정회의가 지난 2월 11일 <출판저널> 회의실에서 열렸다. 신학기를 앞두고 신간 발행목록이 부쩍 준 가운데 열린 이번 선정회의에서 기자들은 각각 3.4권의 후보도서를 추천한 후 최종 후보를 10권으로 압축,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. 후보 도서는 신정일의 <다시 쓰는 택리지>, 송은일의 <도둑의 누이>, 전방욱의 <수상한 과학>, 박이문의 <사유의 열쇠>, 최순자 외의 <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>,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의 <한국여성근현대사>, 여태전의 <간디학교의 행복찾기>, 이타미 준의 <돌과 바람의 소리>, 이승환의 <유교담론의 지형학>, 한동림의 <유령>, 장순근의 <남극탐험의 꿈>이었다.

기자들은 1년여의 선정 관례에 따라 이들 책 중 <다시 쓰는 택리지>의 경우 저자 신정일 씨가 2003년 5월호에 이달의 저자로 선정됐던 점을 감안해 <다시 쓰는 택리지>가 전작 <낙동강 역사문화탐사>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작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 검토한 뒤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. <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>와 <한국여성근현대사>는 의욕적인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이탈자 등에서 옥의 티가 다른 책보다 조금 더 발견되는 불운을 겪었다. 또한 <유령> <도둑의 누이>는 두 작가가 분명 한국소설 문학의 한 지면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2월호 선정작이 소설이었다는 점이 기자들의 결심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. 박이문 씨의 <사유의 열쇠> 역시 박이문 씨의 학자로서, 문인으로서의 열정과 그간의 작업밀도로 볼 때 또 다른 역작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이유로, 여태전씨의 <간디학교의 행복찾기>는 대안학교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저자 자신이 대안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였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'무책임한 바람' 때문에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. 사실, 이런 이유들은 '선정작업'이 안고 있는 '뽑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떨어뜨려야 한다'는

숙명의 한 줄기에 불과할 뿐 '양서로서의 미흡함'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.

기자들은 최종적으로 건축가 이타미 준의 <돌과 바람의 소리>, 생물학자 전방욱의 <수상한 과학>, 지질학자 장순근의 <남극 탐험의 꿈>을 최종 선정후보로 압축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다.

<돌과 바람의 소리>는 '일본의 한국 건축가'로 세계적 공인을 받고 있는 원로 건축가의 인생론이자 예술론으로 읽히는 책이다. 이 책은 화가 지망생이었다가 '건축은 미학'이라는 테마에 복무하면서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이타미 준 건축 이미지를 심고 있는 저자의 삶과 예술세계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. 특히 원고 내용에 따라 한지 느낌의 종이를 번갈아가며 제작해 넣은 출판사의 정교한 '구성'도 기자들의 호감을 샀다.

<수상한 과학>은 이미 실생활 속으로 진주해온 생명공학의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조망한 책이다. 저자는 시종 과학과 윤리의 문제를 교차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생명공학의 설계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, 비판과 반성의 한 틀이 생물학자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에서 독자와 전문가들 모두 일독해야 할 책이다.

<남극 탐험의 꿈>은 낭만성을 동반하기 마련인 탐험의 실체와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는 책이다. 덧붙이고 미화하지 않은 책이라는 뜻이다. 또한 이 책은 저자가 지질학자이자 탐험가로서 비전문가의 리포트가 지닐 수 있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미덕도 지니고 있다. 글과 사진, 관련 자료의 선택과 배치 역시 그런 측면에서 정밀하다.

기자들은 세 권의 최종 후보 중 장순근의 <남극탐험의 꿈>을 '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'로 선정했다. 이 책을 출판한 사이언스북스가 지난해 특별초대석을 장식한 박맹호 민음사 대표의 가족회사라는 점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그것이 이 책의 선정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데 기자들은 동의했다. ☞